



학습목표

-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알게 한다.

준비물

- 그림책 『우리 할아버지』(글·그림 존 버닝햄, 박상희 옮김, 비룡소, 1995년)
- 만들기 재료(휴지나 랩 또는 포일의 심, 두꺼운 색도화지, 흰 도화지, 색지, 리본 끈, 색연필, 가위, 풀, 가는 철사 또는 굵은 바늘과 실)

들어가는 말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성월 교리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위령 성월 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등부 저학년(1~3학년) 아이들에게 위령 성월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니까요. '죽음, 천국, 연옥, 지옥' 이런 말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번 교안에서는 『우리 할아버지』라는 그림책을 이용해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그 빈자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되고, 그들과 함께한 추억은 우리 곁에 남게 됨을 말해 주려고 합니다.

시작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당에 왔어요. 저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 잘 배울 수 있게 함께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아멘.

도입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일이 많았네요. 선생님도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서 가족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던 거예요. 선생님네 가족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게 미사를 드리며 기도했답니다.

11월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리는 달이에요. 지난 10월이 무슨 달이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그렇죠. ‘목주 기도 성월’이었어요. 그렇다면 5월은? 맞아요. ‘성모 성월’이죠.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리고 11월은 ‘위령 성월’이라고 해요. ‘위령 성월’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위령’이라는 말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즉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랍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교리 시간에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전개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림책을 한 권 읽어 줄 거예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랍니다. 손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지,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서 들어 보세요.”

1. 수업의 이해를 돕는 그림책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책 내용 소개 : 이 책은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사계절을 함께 보내며 예쁜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봄별 아래서 씨앗을 심고, 여름날 해변에서 함께하고, 가을 강가에서 낚시를 즐기고, 흰 눈 내리는 겨울의 거리를 마음껏 누비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건강이 나빠진 할아버지는 손녀와 함께 밖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대신 할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손녀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할아버지가 앉았던 의자는 빈자리로 남습니다.

책의 의미 : 이 책은 파스텔 톤 그림으로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들을 표현해 놓았습

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의자가 비어 있음을 통해 할아버지의 죽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의 이러한 장치들은 죽음이라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에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며, 우리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마음속으로 추억함으로써 언제나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야기 주고받기

- 내용 확인 - 할아버지와 손녀는 무엇을 하며 함께 지냈나요?
- 추론 -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에는 할아버지의 빈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손녀와 할아버지의 대화나 그림을 통해 이야기의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게 질문한다. 예를 들어, 손녀의 어떤 말 때문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라고 말씀하셨을지 각자의 의견을 들어 보자.)
- 생활 적용 -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손녀는 할아버지와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손녀와 할아버지는 서로 탄소리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맘을 상하게도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거워 보였지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할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의자가 텅 비어 있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래요, 손녀와 함께 밖에서 신나게 놀아 주었던 할아버지가 더 이상 그렇게 하실 수 없었죠. 아마도 건강이 나빠지셨나 봐요.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우리 곁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그림책 속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도 하느님 나라로 가셨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느님 나라, 즉 천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기도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느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아이들의 대답을 듣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함을 말해 준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들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미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직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배고픔으로 죽는 사람들, 갑자기 일어난 자연재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는 사람들……. 비록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분들도 하느님 나라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게 같이 기도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거든요.”

2. 수업의 이해를 돕는 만들기

기도 십자가 만들기

(지금부터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 십자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

휴지나 랩 또는 포일의 심, 두꺼운 색도화지, 흰 도화지, 색지, 리본 끈, 색연필, 가위, 풀, 가는 철사 또는 굵은 바늘과 실

만드는 방법

- ① 휴지나 랩 또는 포일의 심을 같은 크기로 자르고 색지를 붙인다.(휴지나 랩, 포일의 심 대신 두꺼운 색도화지를 사용해도 된다.)
- ② 색지를 붙인 심을 철사나 실로 꿰어 동그랗게 만든다.
- ③ ②에 리본을 예쁘게 묶어서 장식하고, 벽에 걸 수 있게 고리를 단다.
- ④ 십자가 모양으로 자른 흰 도화지를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 ⑤ 십자가의 한쪽 면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쓰고, 반대쪽은 색연필로 예쁘게 꾸민다. 완성된 기도 십자가를 앞서 만든 벽걸이에 붙인다.(교사가 미리 벽걸이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 둔 다음, 만들기를 진행해도 좋다.)

정리

“오늘은 ‘위령 성월’ 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만든 기도 덕분에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되실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은 교리실에 들어와서 기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당에 오지 않는 날에도 기억하고 기도를 드리면 더 좋아요.”

마침 기도

함께 성호를 긋고, 각자 자신이 만든 기도 십자가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바친다.



김두심_엘리사벳
독서교육 전문가. 서울대학교 도림동 성당에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5년 동안, 지구 월례교육 강사로 1년간 봉사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으로 활동했다.